

주식전략

왜 한국 증시는 유독 피로한가

분석의 기본 가정

- 국내 투자자들이 업종 순환매를 기다리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기대
-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주도 업종의 쏠림 자체가 아닌 이익의 지속성

주식전략 이상연

T.02)2004-9045

lee.sang-yeon@shinyoung.com

더욱 더 비대해지는 쏠림, 오지 않는 순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증시와 달리 투자자들의 체감 온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반도체 BIG2를 중심으로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주도주는 언제 바뀔까"라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금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피로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수 종목으로의 쏠림 자체보다 빠른 주도업종 교체를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투자자들의 학습효과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다. 현재 반도체 BIG2를 중심으로 시장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주요 증시를 살펴보면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이 장기간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증시 주도업종의 교체 속도다. 이를 연간 수익률 1위 업종의 회전율로 계량화한 결과 한국 증시는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주도업종 교체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다음 주도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한국 증시의 특징은 특정 산업에 대한 영구적인 집중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주도업종이 빠르게 교체되는 높은 순환성에 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반도체 쏠림 자체가 아니라 반도체가 여전히 글로벌 산업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며 이익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7월 미리보기: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반도체와 유동성

7월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시장 유동성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한 달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HBM을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의 구조적 성장과 3사 과점 체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CXMT의 부상이 국내 메모리 업체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훼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애플의 CXMT 메모리 채택 확대 검토,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SK하이닉스 ADR상장 등은 단기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월 초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시장의 관심이 2분기 실적 시즌에 집중된 만큼 실적 발표 이후에는 기대감 소멸에 따른 차익실현과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요구불예금, 투자자예탁금, 신용융자잔고 등을 고려하면 개인 수급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거나 시장 유동성의 지속 가능성 점검의 중요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더 비대해지는 쏠림, 오지 않는 순환

반도체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긴 하지만...

연초~현재 반도체 수익률
+226%

현재 한국 증시의 반도체 쏠림이 다소 과해 보일 정도로 강한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지수 상승 역시 상당 부분 반도체 업종이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2026년 초부터 2026년 6월 현재까지 반도체 업종의 누적 수익률은 무려 +226%에 달한다.

한국 증시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 대비 증시 규모(일명 '버핏 지수')와 수출 의존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두 지표를 한 좌표 위에 펼쳐 놓으면 국가마다 뚜렷하게 다른 위치에 자리 잡는다.

한국 버핏지수
144% → 253% 추산

OECD 국가 중 최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경제 규모 대비 증시 규모를 나타내는 버핏지수(시가총액/GDP)가 253%(2026년 현재 시가총액 및 2025년 명목 GDP 기준으로 추산)에 이르렀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준의 144%에서 109%p 상승한 수치다. 버핏지수는 한 나라의 증시가 실물 경제 규모를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상 높을수록 증시가 경제를 압도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렇다면 버핏지수의
급등이 실물 경제와
괴리된 결과인가?

가장 많이 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상승은 실물과 괴리된 과열일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1)한국의 높은 수출 기여도

첫째,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수출 기여도가 구조적으로 크다. 한국의 수출/GDP 비율은 38%로, 비교 대상국 중 대만(74%)에 이어 사실상 최상위권이다. 미국(11%)·일본(17%) 같은 내수 중심 경제와는 체급이 다른, 글로벌 수요에 직접 연동된 경제 구조다. 이런 나라의 증시가 글로벌 사이클이 돌 때 더 크게,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구조의 당연한 귀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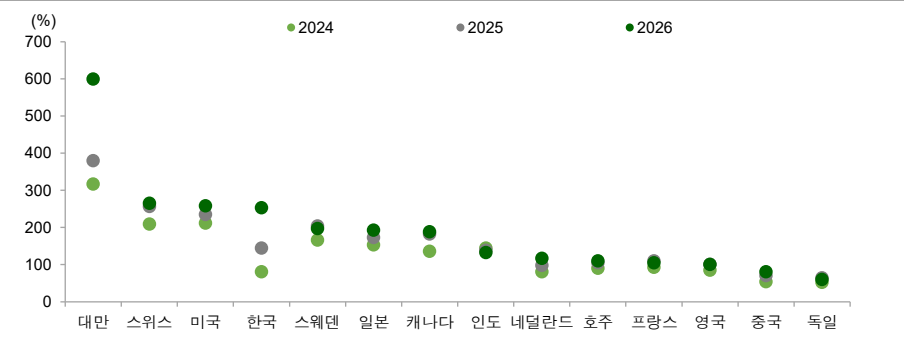
2)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입지

둘째, 그 수출의 핵심에 글로벌 플레이어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AI 인프라 확산의 직접 수혜주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국면이다. 펀더멘털(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자금의 시선이 동시에 한국 증시를 향하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재평가받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저평가됐던 격차를 메우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가깝다.

3) AI밸류체인 노출도가 높은 국가간의 공통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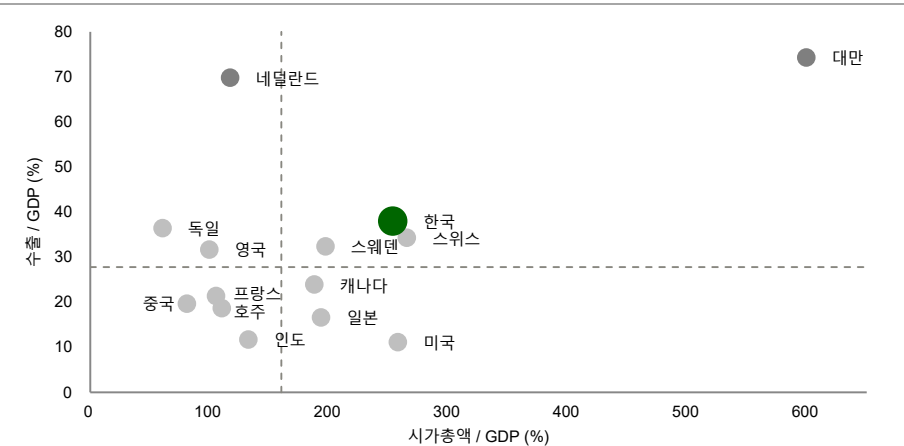
셋째,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같은 기간 대만의 버핏지수는 380%에서 599%로 219%포인트나 뛰었다. 우리 못지않게, 오히려 더 빠르게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경제와 증시가 동시에 집중된 구조를 공유한다. 두 나라가 나란히 가장 큰 폭으로 증권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이 두 시장을 동시에 밀어 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의 상승을 국지적 과열로만 본다면, 같은 동력으로 더 크게 움직인 대만을 설명할 수 없다.

도표 1. 주요국 버핏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한국 증시의 구조적 좌표



주1) 수출 및 명목 GDP는 2025년 기준, 시가총액은 2026년 현재 기준

주2) 점선은 중앙값(median)을 의미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빠름빠름의 민족

주도업종 교체마저
빠른 한국

그런데 한국 증시의 경우 소수 종목 집중 외에도 하나의 구조적 특징이 존재한다. 바로 주도업종의 교체 주기가 다른 주요국 증시 보다도 짧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경기 민감도가 높으니
증시도 마찬가지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증시 역시 글로벌 경기와 투자 사이클 변화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즉, 특정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보다는 해당 시점에서 가장 높은 이익 탄력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업종으로 시장의 관심이 빠르게 이동하는 시장인 것이다. 한국 경제 자체가 고도 성장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철강·화학에서 시작해 자동차·반도체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이후 바이오·2차전지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세계 경제의 주류 수요를 민첩하게 흡수했기 때문에 증시 역시 그 변화를 압축적으로 반영해온 것이다.

이번 반도체의 초강세는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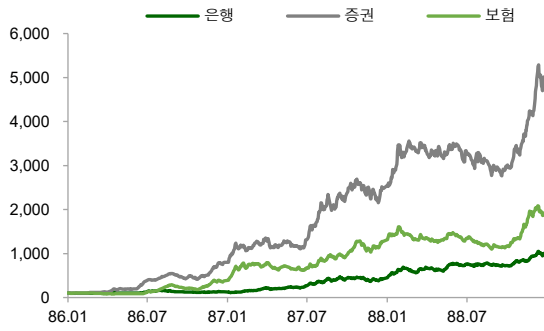
최근 반도체 쏠림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 사이클이 본격화된 것은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하다. 2024~2025년만 하더라도 조선·방산·원자력 등 산업재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 2022~2023년은 2차전지의 시대였다. 2020~2021년에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가 시장의 중심에 있었고, 2017~2019년에는 바이오, 2009~2011년에는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 2004~2007년에는 조선·철강·화학으로 대표되는 트로이카가 시장을 이끌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9~2000년에는 닷컴 버블 붕괴 직전까지는 IT·인터넷 기업들이 증시의 주인공이었고, 1980년대 후반 3저호황 시기에는 증권·은행·보험으로 대표되는 금융주가 시장을 지배했다.

한국 증시는 릴레이 달리기
라는 투자자들의 생각

이 흐름을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하면, 한국 증시는 어느 한 업종이 무대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시대의 글로벌 수요와 이익 사이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화한 업종들이 주기적으로 바통을 이어받는 릴레이에 가깝다. 반도체가 현재의 바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증시의 역사로만 본다면 이 바통이 영원히 한 손에 머무른 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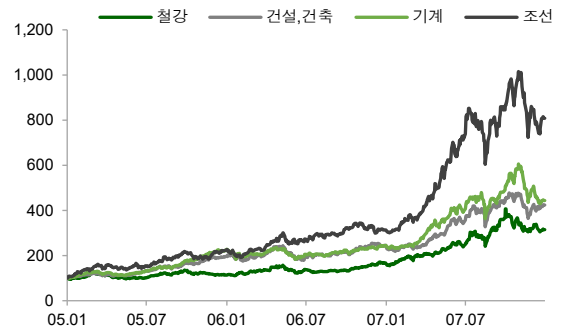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투자자들이 업종 순환매를 기다리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가르쳐 준 학습된 기대이다. 현재의 주도주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 자리는 언젠가 다음 업종에 넘어갔고, 길목을 미리 선점한 투자자가 다음 사이클의 수익을 가져갔다. 지금의 반도체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감각이 시장의 시선을 늘 '다음 바통'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표 3. 3저호황의 진짜 승자는 증권, 보험,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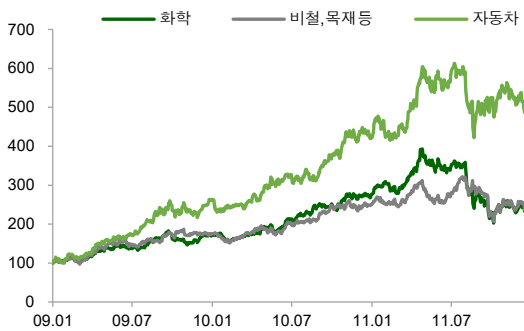
자료 : CEI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트로이카(조선, 기계, 철강)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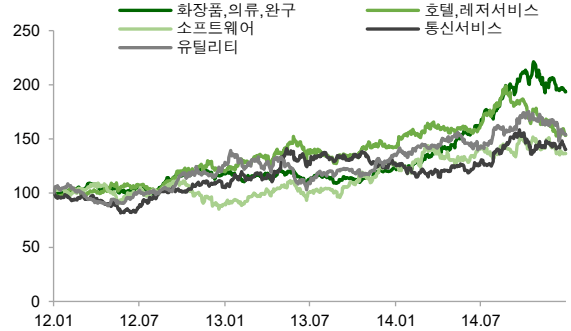
자료 : CEI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차화정(자동차, 화학, 정유)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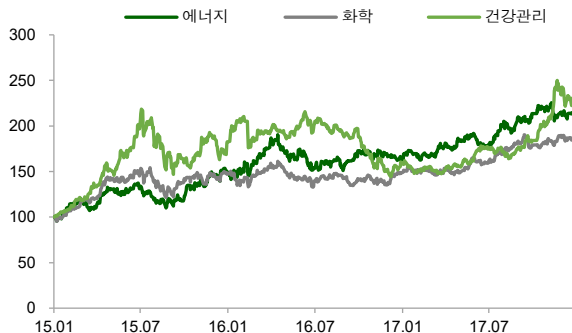
자료 : CEI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박스피 구간에서 선행한 중국 소비주 및 경기방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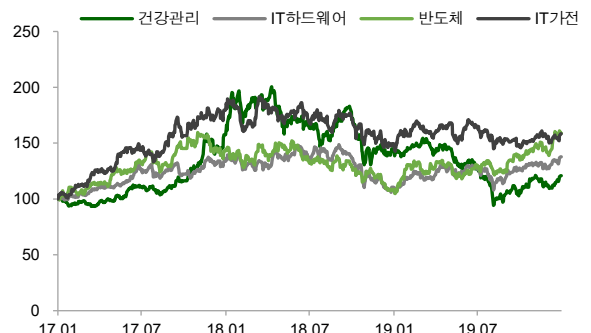
자료 : CEI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저금리·저유가에 바이오 및 에너지화학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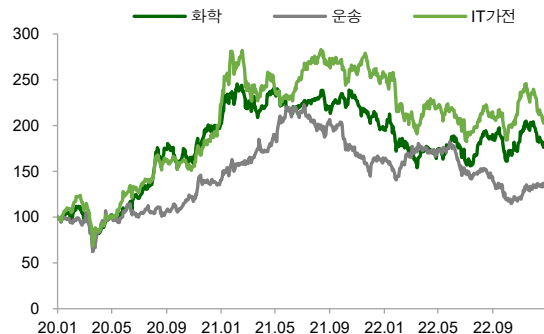
자료 : CEI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도래에 따른 IT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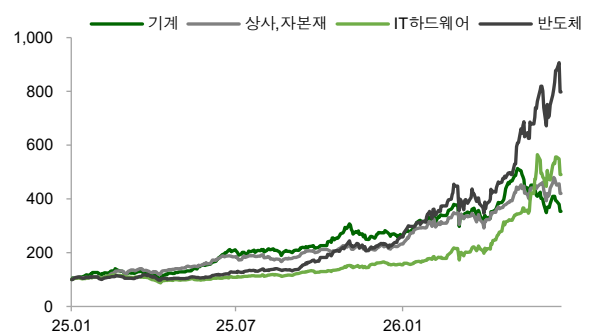
자료 : CEI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팬데믹 유동성의 시대: 공급망 병목과 2차전지



자료 : CEI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조방원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자료 : CEI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시가총액 TOP10 분포로
 봐도 한국 주도 업종은
 빠르게 변화

한국 증시의 주도업종이 유독 자주 바뀐다는 점은 시대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만으로도 직관적으로 확인된다. 이때 우리가 봐야할 것은 시가총액 1위 자리가 아니다. 미국(2010년대 이후 빅테크), 일본(도요타), 대만(TSMC), 한국(삼성전자)은 모두 1위 종목이 오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격을 가르는 것은 '그 아래 2~10위를 채우는 업종이 얼마나 자주 물갈이되는가?'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미국: 산업재 → 빅테크
 이후 주도 기업 고착화

미국은 1990년 IBM·엑손모빌·GE 등 에너지 및 산업재가 지배했지만, 2011년 엑손모빌과 애플의 1·2위 교체를 분기점으로 시장의 중심축이 빅테크로 넘어갔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두고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사이의 경쟁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상위권의 대다수는 M7 위주의 구성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구경제에서 기술 플랫폼으로'라는 단 한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친 뒤 상위권이 굳어진 구조다.

일본: 자동차 금융 전자
 ·통신 틀 유지,
 대만: IT 집중도 최상위

일본과 대만은 안정성이 더 뚜렷하다. 일본은 도요타가 2005년 이후 20년째 1위를 지키는 가운데 미쓰비시UFJ(MUFG)·소니·소프트뱅크 등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 자동차·금융·전자·통신이라는 틀 안에서 자리를 돌려가며 상위권을 채운다. 대만은 더 극단적이어서, 2000년 정상에 오른 TSMC가 25년째 1위를, 폭스콘이 2010년 이후 2위를 지키며 양강 구도를 굳혔고 현재 무려 지수의 80%가 IT 업종으로 채워져있다.

한국: 유틸리티·금융
 → 통신 → 금융 →
 → 소재·산업재
 → 소재·바이오·반도체
 → 산업재·반도체

반면 한국은 1위(삼성전자)만 붙박이일 뿐, 그 아래 상위권은 사이클마다 통째로 교체된다. 1990년 유틸리티·소재·금융에서 출발해 2000년대 초 통신, 2005년 금융, 2010년 철강·조선·화학, 2015년 자동차·화장품, 2020년 2차전지·바이오투자를 거쳐 2025년에는 반도체와 조선·방산·원자력이 상위권에 올랐다. 즉, 앞서 살펴본 미국, 일본, 대만이 '같은 기업군이 순위만 바뀌 머무는' 시장이라면, 한국은 '상위권 업종 자체가 세대마다 물갈이되는' 시장인 셈이다.

도표 11. 한국 시가총액 TOP10 흐름 요약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1	한국전력	한국전력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2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SK 텔레콤	국민은행	포스코홀딩스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3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KT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LG 화학	LG 에너지솔루션
4	하나은행	SK 텔레콤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HD 한국조선해양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5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건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6	삼성전자	SK	KT 엔지	우리금융지주	LG 화학	현대모비스	네이버	HD현대중공업
7	SK	LG 데이콤	기아	SK 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SK 하이닉스	삼성 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8	한국엔컴퍼니	삼성 SDI	현대자동차	LG 디스플레이	KB 금융지주	삼성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 스퀘어
9	기아	KEB 하나은행	삼성전기	SK 텔레콤	삼성생명보험	LG 화학	카카오	두산에너지빌리티
10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삼성 SDI	신한금융지주	기아	네이버	삼성물산	KB 금융지주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미국 시가총액 TOP10 흐름 요약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1	IBM	GE	GE	GE	엑손 모빌	애플	애플	엔비디아
2	엑손 모빌	AT&T	엑손 모빌	엑손 모빌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3	GE	엑손 모빌	화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닷컴	알파벳
4	알트리아	코카콜라	Cisco Systems Inc	씨티그룹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5	BMS	머크	씨티그룹	월마트	GE	엑손 모빌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닷컴
6	머크	알트리아	월마트	뱅크오브아메리카	월마트	아마존 닷컴	버크셔 해서웨이	메타 플랫폼스
7	월마트	P&G	마이크로소프트	J&J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비자	브로드컴
8	AT&T	J&J	AIG	AIG	쉐브론	GE	J&J	버크셔 해서웨이
9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머크	화이자	IBM	J&J	월마트	일라이 릴리
10	P&G	월마트	인텔	알트리아	P&G	웰스파고 & 컴퍼니	JP 모간 체이스	월마트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일본 시가총액 TOP10 흐름 요약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1	NTT	NTT 도코모	토요타자동차	토요타자동차	토요타자동차	토요타자동차	토요타자동차
2	토요타자동차	토요타자동차	MUFG	MUFG	MUFG	소프트뱅크 그룹	MUFG
3	노무라 홀딩스	NTT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NTT 도코모	NTT 도코모	키엔스	소프트뱅크 그룹
4	도쿄 전력 홀딩스	소니 그룹	SMFG	혼다자동차	NTT	소니 그룹	소니 그룹
5	파나소닉 홀딩스	다케다 제약	NTT 도코모	캐논	재팬토바코	NTT 도코모	히타치
6	히타치	파나소닉 홀딩스	NTT	NTT	KDDI	NTT	SMFG
7	미쓰비시중공업	세븐일레븐재팬	세븐 & 아이 홀딩스	SMFG	일본우정	패스트 리테일링	패스트 리테일링
8	세븐일레븐재팬	혼다자동차	혼다자동차	UFJ 홀딩스	소프트뱅크 그룹	주가이계약	도쿄일렉트론
9	도시바	노무라 홀딩스	캐논	미쓰비시상사	혼다자동차	닌텐도	이토추 상사
10	이토요카도	도쿄 전력 홀딩스	다케다 제약	닛산 자동차	SMFG	다이이썬산교	어드벤처스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대만 시가총액 TOP10 흐름 요약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1	창화 상업은행	TSMC	TSMC	TSMC	TSMC	TSMC	TSMC
2	차이나 스틸	청화 텔레콤	홍하이 정밀공업	홍하이 정밀공업	홍하이 정밀공업	홍하이 정밀공업	홍하이 정밀공업
3	TSMC	UMC	청화 텔레콤	포르모사 페트로케미컬	청화 텔레콤	렌파 과기	델타 일렉트로닉스
4	난야 플라스틱	홍하이 정밀공업	포르모사 페트로케미컬	홍다 국제 전자	포르모사 페트로케미컬	포르모사 페트로케미컬	렌파 과기
5	타통	난야 플라스틱	캐세이 파이낸셜 홀딩	청화 텔레콤	캐세이 파이낸셜 홀딩	청화 텔레콤	푸방 금융공고
6	포르모사 플라스틱	포르모사 플라스틱	UMC	포르모사 플라스틱	포르모사 플라스틱	델타 일렉트로닉스	캐세이 파이낸셜 홀딩
7	UMC	차이나 스틸	난야 플라스틱	난야 플라스틱	난야 플라스틱	포르모사 플라스틱	ASE Technology
8	타이베이 국제상업은행	아수스텍 컴퓨터	렌파 과기	포르모사 케미컬&파이버	푸방 금융공고	UMC	관타 컴퓨터
9	에버그린 마린	관타 컴퓨터	아수스텍 컴퓨터	캐세이 파이낸셜 홀딩	포르모사 케미컬&파이버	난야 플라스틱	청화 텔레콤
10	아시아 시멘트	타이완 모바일	유다 광전	렌파 과기	델타 일렉트로닉스	캐세이 파이낸셜 홀딩	CTBC 파이낸셜 홀딩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간 수익률 1위 업종
회전을 기준으로 봐도
한국 주도 업종은
빠르게 변화

지금까지는 시가총액 상위 구성으로 교체 양상을 살펴왔다. 이를 연간 수익률 1위 업종의 회전을 계량화하면 같은 결론이 수치로도 확인된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가장 많이 체감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 증시의 주도업종 교체는 뚜렷하게 잦다.

이를 계량화하기 위해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세 가지 지표를 산출했다.

- 1) Top3 중복률: 전년도 상위 3개 업종 중 올해도 상위 3위 안에 든 업종의 비율
- 2) 연속 1위 비율: 전년도 1위 업종이 다음 해에도 1위를 유지한 빈도
- 3) 1위 업종수: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1위에 오른 업종의 가짓수

세 지표 모두에서 한국의 교체 빈도는 미국을 크게 상회했다. WICS 분류 기준 Top3 중복률은 11.5%로 S&P500(25.0%)의 절반에 못 미쳤고, 연속 1위 비율은 3.8%로 S&P500(22.2%)의 약 6분의 1에 불과해 27년간 1위가 연속된 해는 단 1회였다. 1위에 오른 업종도 27년간 18개(전체의 66.7%)로, 37년간 13개(35.1%)에 그친 S&P500보다 훨씬 다양했다. KRX 기준으로 기간을 1980년까지 늘려도 결론은 같다(Top3 중복률 15.2%, 연속 1위 6.5%).

한 가지 방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5개 지수의 업종 분류 개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Eurostoxx600 19개, KRX 22개, S&P500 24개, WICS 26개, TOPIX 33개). 업종이 많을수록 중복 확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져 교체가 과장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업종 수가 결과를 좌우한다면 가장 세밀한 TOPIX가 Top3 중복률 최저, 가장 거친 Eurostoxx600이 최고여야 하는데 실재는 다르다. 최저는 한국, 최고는 S&P500이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교체 빈도는 분류 체계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구조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투자자들의 주도 업종
교체 체감 속도는
더 빠를 수 밖에

다만 균형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수익률 1위 회전을 자체는 일본 TOPIX(13.3%, 6.7%)·Eurostoxx600(13.7%, 7.7%)도 한국과 큰 차이가 없어, 이 지표만으로 한국의 특질이 도드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미국과의 대비다. 최근 미국 증시가 빅테크라는 동일 기업군으로 상위권을 굳히며 교체가 잦아든 사이, 한국은 사이클마다 주도주가 통째로 바뀌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미국이 안정될수록, 그와 대비되는 한국의 잦은 교체는 국내 투자자에게 더 크게 체감됐을 것이다.

한국 증시의 특징은 글로벌
환경에 변화에 발맞춘 빠른
교체 및 높은 순환 빈도

결국 한국 증시의 특징은 특정 산업의 영구적 집중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주도업종이 빠르게 교체되는 높은 순환성에 있다. 현재의 반도체 쏠림 역시 과거 차화정·바이오·2차전지처럼 이 순환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그렇다면 관건은 쏠림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쏠려 있는 반도체가 글로벌 산업 변화의 중심에서 이익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도표 15. 주요지시별 주도업종 교체 빈도 비교 분석 요약

증시	업종 중복률			연속 1위 횟수	연속 1위 비율	1위 업종수
	TOP3	TOP5	TOP10			
한국 (KRX, 26 업종) 1980~2026	15.2%	23.0%	51.3%	3	6.5%	17
한국 (WICS, 24 업종) 2000~2026	11.5%	20.0%	40.0%	1	3.8%	18
미국 (GICS, 24 업종) 1990~2026	25.0%	27.2%	46.4%	8	22.2%	13
일본 (TOPIX, 33 업종) 1981~2026	13.3%	19.1%	30.7%	3	6.7%	24
유럽 (STOXX600, 19 업종) 1987~2026	13.7%	28.2%	56.9%	3	7.7%	16

자료: CEIC, 에프앤가이드(FnGuide),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주요국 증시 연간수익률 1위 업종 비교(1980~1999)

연도	한국 (KRX)		미국 (S&P500)		일본 (TOPIX)		유럽 (STOXX600)	
1980	건설	+36%	—	—	—	—	—	—
1981	운송장비부품	+84%	—	—	가전제품	+32%	—	—
1982	비금속	+41%	—	—	비철금속	+26%	—	—
1983	제약	+29%	—	—	정보&통신	+136%	—	—
1984	제약	+68%	—	—	은행	+123%	—	—
1985	운송장비부품	+122%	—	—	부동산	+88%	—	—
1986	증권	+703%	—	—	증권&상품선물	+137%	—	—
1987	은행	+247%	—	—	철&철강	+80%	건설 및 건자재	+4%
1988	건설	+134%	—	—	철&철강	+127%	기초자원	+45%
1989	기계장비	+42%	—	—	광업	+98%	유틸리티	+39%
1990	종이목재	-9%	가정용품 &개인용품	+16%	금속제품	-24%	헬스케어	-6%
1991	운송장비부품	+12%	유통	+63%	석유&석탄제품	+20%	헬스케어	+60%
1992	금융	+65%	반도체 &반도체장비	+62%	고무제품	-6%	미디어	+16%
1993	보험	+86%	반도체 &반도체장비	+53%	기타금융업	+32%	금융서비스	+60%
1994	종이목재	+85%	기술 하드웨어 &장비	+20%	기계류	+30%	기초자원	+6%
1995	보험	+44%	제약	+57%	정밀기기	+17%	헬스케어	+50%
1996	제약	+7%	반도체 &반도체장비	+76%	운송장비	+25%	화학품	+39%
1997	금속	-19%	미디어	+51%	기타금융업	+20%	은행	+70%
1998	증권	+242%	소프트웨어	+79%	제약업	+18%	정보통신	+63%
1999	전기전자	+141%	소프트웨어	+81%	정보&통신	+252%	기술	+136%

자료: CEIC, 에프앤가이드(FnGuide),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주요국 증시 연간수익률 1위 업종 비교(2000~2026)

연도	한국 (WICS)		미국 (S&P500)		일본 (TOPIX)		유럽 (STOXX600)	
	업종	수익률	업종	수익률	업종	수익률	업종	수익률
2000	디스플레이	-28%	헬스케어 장비 &서비스	+56%	유리 &세라믹	+52%	음식료	+25%
2001	소매(유통)	+175%	유통	+17%	고무제품	+21%	기초자원	+12%
2002	운송	+14%	가정용품 &개인용품	-0%	고무제품	+6%	부동산	-7%
2003	운송	+93%	반도체 &반도체장비	+93%	철&철강	+84%	기술	+34%
2004	에너지	+97%	소비자서비스	+38%	기타금융업	+48%	부동산	+39%
2005	증권	+200%	에너지	+29%	광업	+105%	기초자원	+49%
2006	철강	+48%	부동산	+37%	철&철강	+31%	부동산	+51%
2007	조선	+158%	에너지	+32%	기타제품	+40%	기초자원	+28%
2008	필수소비재	-15%	식품 &생필품 유통	-12%	펄프&제지	+0%	헬스케어	-18%
2009	자동차	+164%	자동차&부품	+114%	운송장비	+53%	기초자원	+101%
2010	조선	+111%	자동차&부품	+52%	석유&석탄제품	+32%	자동차&부품	+44%
2011	필수소비재	+21%	소비자서비스	+16%	고무제품	+7%	헬스케어	+12%
2012	반도체	+35%	미디어	+37%	증권&상품선물	+102%	자동차&부품	+36%
2013	소프트웨어	+44%	미디어	+48%	정보&통신	+90%	자동차&부품	+37%
2014	화장품, 의류,	+56%	반도체 &반도체장비	+33%	항공운송	+40%	부동산	+20%
2015	건강관리	+83%	유통	+24%	어업,농업&임업	+41%	여행 및 레저	+20%
2016	반도체	+41%	반도체 &반도체장비	+27%	기타제품	+18%	기초자원	+62%
2017	IT가전	+80%	기술 하드웨어 &장비	+38%	석유&석탄제품	+52%	기술	+19%
2018	조선	+38%	유통	+13%	전력&가스	+11%	유틸리티	-2%
2019	반도체	+47%	기술 하드웨어 &장비	+60%	정밀기기	+46%	금융서비스	+39%
2020	IT가전	+123%	기술 하드웨어 &장비	+58%	가전제품	+25%	기술	+14%
2021	미디어,교육	+43%	자동차&부품	+52%	해상운송	+208%	은행	+34%
2022	보험	+6%	에너지	+59%	광업	+40%	석유 및 가스	+24%
2023	철강	+65%	반도체 &반도체장비	+98%	철&철강	+51%	소매	+34%
2024	조선	+65%	반도체 &반도체장비	+75%	보험	+60%	은행	+26%
2025	기계	+163%	반도체 &반도체장비	+46%	비철금속	+108%	은행	+67%
2026	IT하드웨어	+217%	반도체 &반도체장비	+40%	비철금속	+101%	석유 및 가스	+22%

주)음영은 2년 연속 연간 수익률 1위 업종이 같음을 의미
 자료: CEIC, 에프앤가이드(FnGuide),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7월 미리보기: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반도체와 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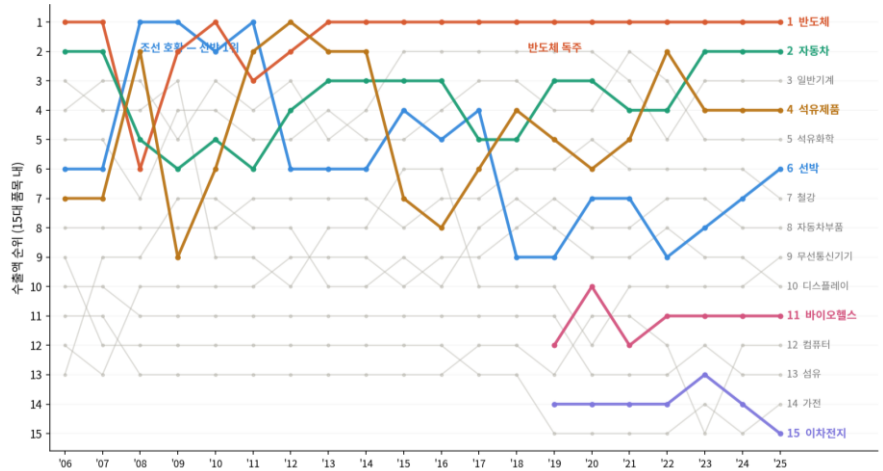
반도체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한국의 빠른 주도 업종 교체를 생각하면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한국의 주도주는 왜 그토록 짧게 살았으며, 지금의 반도체는 그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증시뿐만이 아닌

우리 수출 데이터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수출을 이끄는 품목은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2006~07년 1위였던 반도체는 2008~11년 조선 호황기에 선박에 정상을 내줬고, 2012년에는 고유가를 탄 석유제품이 잠시 1위에 올랐다. 그 사이 무선통신기기는 3위에서 9위권으로 밀려났고, 디스플레이는 LCD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며 존재감을 잃었다. 증시의 주도 업종이 IT에서 '차·화·정'과 조선·중공업으로, 다시 반도체와 2차전지로 옮겨 다닌 궤적과 거의 포개진다. 실물의 1등이 바뀌면 시장의 1등도 바뀐다. 정작 중요한 질문은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가'이다. 답은 산업의 종류가 아니라 이익의 성격에 있다.

도표 18. 한국 주요 수출품목 순위 변동 요약



자료 : CEI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핵심은 산업 사이클의 길이가 아닌 이익의 지속성

흔히 '경기민감'을 '사이클이 짧다'로 오해하지만 둘은 다르다. 조선의 사이클은 길고 메모리의 사이클은 짧다. 그런데도 둘 다 주도주로서의 수명은 짧았다. 핵심은 사이클의 길이가 아니라 이익의 지속성이고, 한국의 대표 산업들은 그 지속성을 갉아먹는 요인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3가지 측면을 확인할 필요
1)제품의 성격: 범용재

첫째, 이들이 파는 것은 대체로 가격이 사이클을 따라 출렁이는 범용재다. 제품 차별화가 아니라 가격이 이익을 좌우하기 때문에, 업황이 꺾이는 순간 이익은 계단이 아니라 절벽으로 떨어진다. 석유화학과 철강의 수출 비중이 호황과 불황에 따라 크게 널뛰는 것이 그 증거다.

2) 자본집약적 산업

둘째,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이라는 점이다. 호황이 오면 너 나 할 것 없이 증설에 뛰어들고, 그 증설이 다음 불황의 공급 과잉을 잉태한다. 호황이 곧 불황의 씨앗을 뿌리는 구조다. 선박이 전형적인 사례다. 2008~11년 내내 수출 1위를 지키던 선박은, 바로 그 호황기의 대규모 발주와 증설이 부메랑이 되어 2018년 이후 9위권까지 추락했다. 사이클이 긴 조선조차 이 함정을 피하지 못했다.

3) 후발 주자의 추격

셋째, 후발 주자의 추격이다. 특히 중국이 기술 격차를 좁히면 가격 결정력은 한 번 더 약해진다.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밀려나고, 석유화학·철강이 중국발 증설에 눌린 것이 이 경로다.

그래서 한국 주도주의 이익은 복리로 쌓여 새로운 바닥을 높여 가기보다, 정점을 찍은 뒤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문제는 주가다. 시장은 정점의 이익에 정점의 멀티플을 얹는다. 이익이 평균으로 돌아오고 그 위에 얹었던 멀티플마저 제 자리를 찾을 때, 디레이팅의 낙폭은 두 배로 가팔라진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1) 범용재이며,
2) 자본집약적이고,
3) 중국 업체의 추격은
이미 시작된 상황

지금 한국 수출은 다시 반도체로 강하게 쏠려 있다. 15대 품목 내 비중은 2006년 13.5%에서 2025년 31.4%로 올라, 한 품목이 전체의 3분의 1을 짊어진 단일 체제에 가까워졌다. 메모리 역시 범용재이고 자본집약적이며 공급 사이클의 지배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위의 세 가지 요인에서 자유롭지 않다. 집중은 호황기엔 지수의 강력한 엔진이지만, 사이클이 돌아설 땐 지수 전체를 함께 끌어내리는 위험이 기도 하다.

결론: 한국의 주도 산업의 이익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수출 구조가 변화하고 증시가 빠르게 출렁이는 것

결국 수출 구조가 자주 바뀌는 현상과 증시 주도주가 짧게 끝나는 현상은, 같은 뿌리에서 자란 두 개의 줄기다. 하나는 실물에서 이익이 출렁이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익에 베팅한 멀티플이 출렁이는 모습이다.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를 길게 들고 가기 어려운 이유는, 주도 산업의 이익이 애초에 길게 지속되도록 설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메모리 3사의 과점구조와 HBM의 고마진 특성은 과거와는 다른 높은 이익방어성을 의미

→ 이들의 지속 여부가 관건

그렇다면 관건은 '싸다'가 아니라, 지금의 주도산업이 그 할인을 정당화해온 과거의 범용재 사이클과 정말 다른가에 있다. 메모리 역시 범용재라는 본질에서 출발했지만, 3사 과점 구조와 HBM의 맞춤형·고마진 특성은 과거 철강·화학·조선이 갖지 못했던 이익 방어력을 의미할 수 있다. 만약 반도체가 이 차별화를 통해 이익의 지속성을 입증한다면, 한국 증시에 오래 적용되어온 할인은 비로소 좁혀질 여지가 있다. 반대로 그 차별화가 결국 공급 사이클에 굴복한다면, 이번 쓸림 역시 과거와 같은 경로를 밟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쓸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차별화가 사이클을 건디는가이다.

7월의 이벤트:
애플의 CXMT 메모리
채택 확대 가능성,
삼성전자 잠정실적(7/7),
SK하이닉스ADR상장
(7/10)

공교롭게도 7월은 국내 반도체 업종의 장밋빛 전망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하는 이벤트들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 애플의 CXMT 메모리 채택 확대 검토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 발표는 7월 7일 전후가 유력하다. 이어 7월 10일 예정된 SK하이닉스의 ADR 나스닥 상장은 글로벌 투자자 저변 확대와 AI 메모리 투자 지속 여부를 가늠할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도 단기 투자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월 초에는 실적과 정책, 수급 이벤트를 차례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 내 CXMT
입지 확대의 제약과 중국
내부의 기수요를 고려하면
확률은 낮은 시나리오로
판단

그러나 CXMT의 부상은 중장기적으로 경계해야 할 변수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제약도 적지 않다. 우선 CXMT의 생산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미 소화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단기간 내 글로벌 메모리 공급 구조를 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 역시 전략적 차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선례를 남기기에는 상당한 정책적 부담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관련 이슈가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메모리 업체의 경쟁 우위를 훼손할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이번 실적 시즌은 AI 메모리 수요와 HBM 중심의 이익 개선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개인 수급 위축에
따른 증시 추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

개인이 국내 증시의 핵심 수급 주체로 자리 잡은 만큼 7월에는 시장 유동성에 대한 점검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현재 요구불예금, 투자자예탁금, 신용융자잔고 등 주요 유동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인 수급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2분기 실적 시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기대감 소멸에 따른 차익실현과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7월은 실적뿐만 아니라 개인 수급과 시장 유동성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시기로 판단하며, 당사 역시 요구불예금, 투자자예탁금, 신용융자잔고 등 주요 유동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관련 의견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도표 19. 애플,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확대 검토



자료 : FT

도표 20.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개요 및 과제



자료 : 문화일보

한국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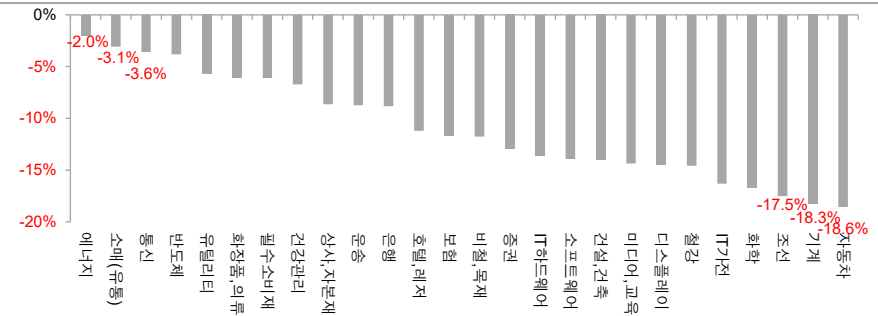
6/26 KOSPI 종가
8,411pt로 마무리

지난주 KOSPI는 8,411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7.1%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마이크론 호실적에 따른 반도체 반등이 있었지만, 한 주 동안 서킷 브레이커가 두 차례 발동될 정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지수 반등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KOSPI 전체 이익 모멘텀 소폭 반등

한편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KOSPI 전체 이익 추정치 상향 폭이 소폭 반등한 상황이다. 특히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의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소폭 상승했으며 이외에도 에너지, 비철, 건설/건축, 조선, 운송, 미디어/교육,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이익 전망이 개선되며 실적 모멘텀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최근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표 21.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6.26)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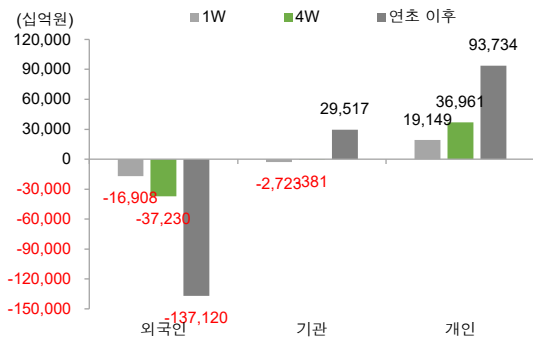
도표 22.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6.26)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5.29	06.05	06.12	06.19	06.26	05.29	06.05	06.12	06.19	06.26
KOSPI	8.0	-3.7	-0.5	11.4	-7.1	13.6	9.8	8.4	7.5	8.6
KOSDAQ	-7.4	-6.7	2.7	-6.1	-11.9	4.4	4.8	3.8	2.6	2.9
에너지	-0.7	-5.4	-3.3	6.7	-2.0	59.9	58.5	43.6	7.7	12.5
화학	-1.9	-9.0	0.3	-3.6	-16.7	42.2	11.8	9.1	6.5	6.0
비철/소재	-5.7	-7.9	-3.2	-3.4	-11.8	-7.9	-8.2	-3.4	-2.9	1.8
철강	-5.6	-8.2	-2.8	-5.4	-14.6	7.2	1.4	2.6	1.9	0.9
건설/건축	-4.5	-8.8	5.3	-6.0	-14.0	7.4	5.7	7.0	6.8	8.1
기계	-9.1	-7.4	0.5	2.7	-18.3	2.5	2.8	4.0	3.3	3.1
조선	-2.3	-5.8	-1.0	3.6	-17.5	8.5	9.4	6.1	2.1	2.9
상사/자본재	1.1	-3.0	1.8	2.5	-8.6	25.8	19.4	3.0	2.0	1.5
운송	-2.8	-4.8	2.8	2.4	-8.7	2.2	2.6	4.0	4.1	5.4
자동차	8.8	-5.2	-7.9	-1.6	-18.6	0.5	0.5	0.6	0.7	0.6
화학품/의류	-5.0	-2.2	0.9	-3.0	-6.0	6.3	4.1	2.7	2.5	1.2
호텔/레저	-4.7	1.0	0.2	-3.7	-11.2	-1.3	2.7	2.4	3.5	2.9
미디어/교육	-6.4	-4.4	5.6	-3.4	-14.4	-9.4	0.8	2.2	1.8	1.8
유통	-5.3	7.4	6.2	-1.3	-3.1	8.9	9.2	1.8	5.2	5.1
음식료/담배	-4.8	-3.1	2.9	-3.6	-6.1	5.0	3.8	1.7	0.8	0.7
헬스케어	-2.5	-7.4	-3.4	0.1	-6.7	2.4	2.8	1.2	0.9	2.0
은행	-5.3	9.5	-3.3	-0.6	-8.8	0.6	0.6	0.7	0.7	0.6
증권	-8.1	-0.4	-2.7	-3.4	-13.0	7.5	8.2	5.8	2.5	1.1
보험	1.1	9.3	-3.8	16.4	-11.7	11.2	11.9	12.7	6.1	4.4
소프트웨어	10.2	-1.5	-4.6	-6.0	-13.9	1.8	2.3	1.1	-0.2	-0.2
IT하드웨어	34.2	-15.6	-1.5	18.5	-13.6	13.4	10.5	12.0	11.3	8.9
반도체	12.5	-3.1	1.3	17.4	-3.8	15.0	10.3	9.6	9.1	10.5
IT기전	8.3	-9.6	-10.5	-1.1	-16.3	18.1	10.5	5.8	6.3	1.6
디스플레이	-5.9	-6.5	-3.0	-4.5	-14.4	0.8	4.9	1.2	-4.0	-7.5
통신	-2.4	2.9	-0.7	-6.3	-3.6	-0.2	-0.1	0.6	0.6	0.6
유틸리티	-4.1	-2.9	4.0	-4.8	-5.7	-0.2	-0.1	0.6	0.6	0.6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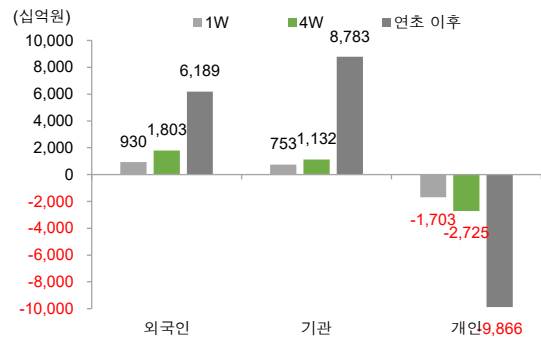
지난주 외국인은 KOSPI를 순매도한 반면 KOSDAQ은 순매수하며 실적과 구조적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 기조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기계, 화학, IT하드웨어, 건설/건축, IT가전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유입되었다.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의 차익실현은 지속되는 흐름이다. 기관 또한 KOSPI는 순매도하고 KOSDAQ은 순매수하였다. 업종별로는 건강관리,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 화장품/의류, 필수소비재를 순매수 했으나 반도체, 기계, 자동차, 조선, IT가전을 순매도했다.

도표 23.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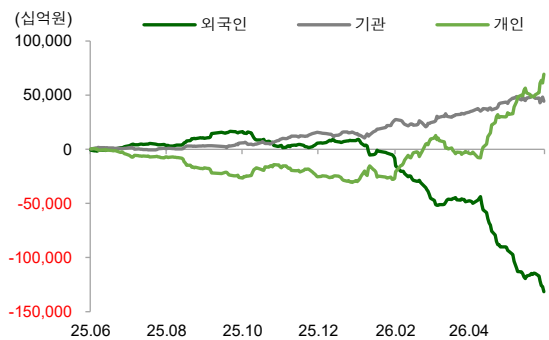
주) 2026.06.26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4.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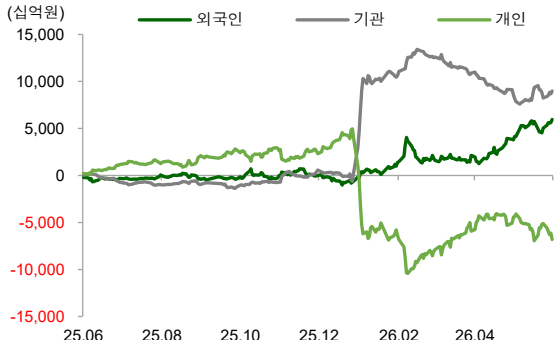
주) 2026.06.26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5.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6.26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6.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6.26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7.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기계	621.1
화학	276.0
IT하드웨어	243.8
건설, 건축	227.1
IT가전	210.3
반도체	-17,089.6
자동차	-422.9
에너지	-91.8
상사, 자본재	-41.1
보험	-7.6

주) 2026.06.26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8.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건강관리	297.0
IT하드웨어	206.1
상사, 자본재	77.3
화장품, 의류	34.9
필수소비재	29.6
반도체	-609.5
기계	-465.2
자동차	-426.8
조선	-382.0
IT가전	-262.8

주) 2026.06.26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6/29	6/30	7/1	7/2	7/3
	미 5월 JOLTS 보고서 미 6월 CB 소비자기대지수 NKE	미 6월 ADP 비농업 고용 한 6월 수출입동향	미 6월 고용보고서 미 6월 실업률	
7/6	7/7	7/8	7/9	7/10
미 6월 ISM서비스 지수	삼성전자 잠정실적(예상)	미 6월 FOMC의사록	한 옵션 만기일 PEP	SK하이닉스 ADR 상장 DAL
7/13	7/14	7/15	7/16	7/17
	미 6월 CPI	미 6월 PPI	한국은행 금통위 미 6월 소매판매	미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JPM, BAC, GS, WFC, C	ASML, JNJ, MS, UAL	UNH, GE, NFLX, STX, ISRG, BX	
7/20	7/21	7/22	7/23	7/24
		ECB 통화정책회의(~7/23)		
	SCHW, BLK, DHR, NOC, GM, DHI	TSLA, GEV, TXN, IBM, PM	INTC, MA, KLAC	XOM, CVX, AXP, VZ
7/27	7/28	7/29	7/30	7/31
	미 연준 FOMC(~7/29) 미 7월 CB 소비자기대지수		BOJ 금정위(~31일) BOE 통화정책회의 미 6월 PCE 미 2분기 GDP 속보치	
	GOOG, MSFT, V, KO, RTX, LMT	META, ARM, PG, MCD, BA, NOW, F	AAPL, AMZN, AMGN, GILD, MO, BMY, HWM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항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항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